

살롬~!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?
 탄자니아는 무더운 여름으로 치닫고
 있습니다. 무덥긴 하지만 달고 과즙이
 많은 파인애플이 있어 견딜 만 합니다.
 그런데 파인애플이 어떻게 열리는지
 아시는지요? 야자수처럼 큰 나무에서
 열릴 것 같지만, 파인애플은 사진처럼
 땅에서부터 자랍니다.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 사역 현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파인애플을 보고 신기해서
 사진 한 컷 찍었습니다.



사역

1) 스태프 하우스 건축

4 월 말부터 진행되었던 스태프하우스 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. 그래서
 지난 달 김병문, 김금옥 선교사님이 스태프 하우스에 입주하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
 2012 년 1 월 중순에 단기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김병문 선교사님 집 옆에 따로 지어진
 원룸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.



2) 종강

7 월부터 시작된 학기가 2011 년 12 월 23 일로 종강했습니다. 방학식 날 학생들과
 선생님들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문제와 개선해야 할 점들을 확인했습니다. 그것을
 바탕으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성적 우수자,
 모범 학생을 선발해 상을 주었습니다.

탄자니아에서 뜨거웠던 2011 년은 저물었습니다. 하나님과 ‘동행’하면서 그분의 시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고 싶어 탄자니아에 왔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일년을 돌아보니 같이 걸어왔던 발자국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 제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이겠지요. 저의 완악함인 동시에 연약함입니다. 또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.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 같습니다. 1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재정으로 힘껏 후원해주셔 감사합니다. 2012년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.

기도제목

1. 영혼의 가난함으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2. 후임 단기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업무의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3. 2011 월 1 월 9 일 네 번째 학기가 시작됩니다.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동신 기술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4. 사역 남은 기간 동안 맡은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5.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